

# “어떤 비난도 감수...허위정보는 불법”

### 조국 기자간담회 통해 의혹 해명 딸 문제 수사 진행 진실 규명 확인 학생 수업권 침해 학교와 논의 결정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딸의 입시 특혜 의혹,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의 해명을 정리했다.

◆딸의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당시에는 그 과정을 상세히 알지 못했고 최근 검증과정에서 확인하게 됐다. 학부형 참여 인턴십은 지나 배우자가 만든 게 아니라 아이가 재학 중인 고등학교 담당 선생님이 만들었고 아이가 그것에 참여했다. 그 과정에서 교수에게 지나 가족 중 누구도 연락한 적이 없다. 지금 시점에서 보니 고등학교 딸 아이가 1저자로 돼 있는 게 좀 의아하다고 저도 생각하게 됐다. 당시 시점에는 1저자, 2저자 판단 기준이 느슨하거나 모호하거나 책임교수의 재량에 많이 달려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저희 아이가 영어를 좀 잘하는 편이다. 그래서 실험에 참석하고 난 뒤 연구성과를 영어로 정리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할 것 같다. 물론 이 문제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그에 따라 더 많은 진실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

◆딸의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의혹=딸이 환경대학원에서 장학금 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다른 학생이 못 받아서 송구하다. 1학기 장학금 받았을 때 일에 바빠서 몰랐다. 2학기를 휴학하게 되면서 장학금 문제에 대해 몰랐고 알게 됐다. 장학금 반납이 어렵다는 것을 동창회 측으로부터 들었다. 사유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에 앞서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스

알지 못한다. 검찰 압수수색 등을 해서 나올 것이다. 또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 지급에 불법이 없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제 아이 장학금과 관련해 제가 연락, 부탁했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 이는 성적과 관련 없는 장학금이다.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줬다고 들었다.

◆사모펀드 투자=제 처가 사모펀드에 투자한 건 사실이다. 민정수석이 되고 난 뒤에 개별주식은 보유하는 게 좋지 않다는 얘길 듣고 처분했으며, 펀드 투자는 허용된다는 말에 5촌 조카와 전문가에게 물었다. 분명히 말하는 건 저는 물론 제 처도 사모펀드 구성과 운영 등의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다. 따라서 관여도 하지 않았다. 이

점은 문제의 사모펀드 회사가 공식적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블라인드 펀드라는 말 자체를 이번에 알았는데 운용상 어디에 투자되는 것인지를 투자자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설계돼 있고 그것을 알려주면 불법이다. 5촌 조카가 하루빨리 귀국해서 실제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주길 바라고 있다.

◆폴리페서(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수) 논란=서울대를 포함한 여러 대학생들의 비판을 잘 안다. 법적인 제한은 없을지라도 장기간 휴직을 하게 되면 학생 수업권에 영향을 끼친다. 임명 논란 종료된 뒤 어떻게 하는 것이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가 없는지 정부, 학교와 논의해 결정하겠다. 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r

# 김상조 靑 정책실장, 오늘 민주노총 방문

### 노정관계 개선 역할 주목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를 만난다. 극도로 악화된 노정 관계를 개선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2일 청와대와 노동계에 따르면 김 실장은 3일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위원장실을 방문해 김명환 위원장, 백석근 사무총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와 면담을 갖는다.

김 실장의 민주노총 방문은 지난 6월 21일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된 지 약 70일 만으로, 청와대 비서진이 노동계를 직접 방문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김 실장은 정책실장에 취임한 뒤 인사차 국회와 언론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을 잇따라 방

문했으나 민주노총과의 만남은 불발됐었다. 최저임금 결정 등 노동 현안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면서 민주노총이 김 실장 방문을 거절해왔기 때문이다.

김 실장의 거듭된 요청을 민주노총이 받아들여 이면서 이날 면담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이 이날 극도로 악화된 노정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계 달래기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주목된다.

특히 김 실장은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출신이란 점에서 전임 장하성 정책실장보다 노동계에 우호적 성향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저임금 속도조절, 탄력근로제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등 현안마다 노정간 대립이 격화된 상황인어서 관계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뉴스

# 최기영·조성옥 후보자 청문회 실시

### 도덕성 자질 검증·조국 의혹 질문도

국회는 2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조성옥 공정거래위원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고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했다.

국회 과방위의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측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논문 관련 의혹을 어떻게 보는지 집중적으로 물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후보자의 리더십을 당부했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가 R&D를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조 후보자 딸의 논문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소감을 알려 달라”며 “고등학교 2학년 인문계 출신이 2주 동안 인턴을 하고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지수)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부분에 납득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반면 민주당은 최 후보자의 전문성 등을 인정하며 장관으로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전형적인 학자이고 연구에 몰두하는 훌륭한 선비라는 평가를 받는다”며 “본인 분야의 최고 과학자라면 일단 리더십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부위가 진행한 조 후보자 청문회에서 야권은 후보자의 한화 그룹 사외이사 이력, 후보자 형부의 회사에서 감사를 했던 이력 등에 대해 지적했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를 향해 “후보자가 사외이사로 재직하던 3년 동안 한화그룹이 세 차례에 걸쳐 내부거래 공시위반, 입찰담합, 수수료 과다 부과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사회에서 한 번이라도 이 문제점을 지적한 적 있나”라고 꼬집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 나경원 ‘광주일고 정권’ 발언 비판 확산

### 지역서도 정치권·시민사회 규탄 잇따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광주일고 정권’ 발언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거의 광기에 가까운 것”이라며 “6·70년대 지역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언동을 이제 와서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나 원내대표는 아버지 고향이 충청도라며 ‘충청도의 딸’이라고 했고, 할아버지 고향인 영암에선 ‘호남의 손녀’라고 했다. 자신의 둘째 아들은 부산에서 태어났다고 ‘부산의 어머니’라고 했다”며 “내년 총선에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부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해영 의원은 “800만 부울경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나

원내대표의 지역주의 조장 발언은 오랜 기간 많은 분들의 헌신으로 극복되어가는 광국적 지역주의를 부활시키려는 것이다.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박광온 의원은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다. 한국당의 반국민적·반역사적인 발언은 우리 역사상 최악의 망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고 설훈 의원도 “철지난 지역주의의 망령을 다시 불러들였다”고 비판했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 장정숙 수석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요즘 나 원내대표는 좋은 일로 인구에 회자되는 법이 없다. 잊혀지는 것보다는 낫다는 계산인지 모르겠으나 막말에, 수준 이하 스텐들로 정치생명 연장이나 꺾히는 듯해 안스럽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광주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논평에서 “아무리 망언을 일상적으로 하는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주의 망령을 부활 시켜 국민을 분열 시켜 정치적 이익을 얻는 것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도 보도자료를 통해 “나 원내대표는 악질적 지역 패권주의의 망령을 되살리는 알뜰한 정략으로 민심을 난도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무덤에 있는 지역감정을 불러내 쫓살만 한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몸부림치는 그들에게 분노조차 아깝다”며 “제 1야당의 원내대표 발언은 단순히 개인 실언으로 치부할 수 없다. 철저히 계산된 속셈에서 나온 정치적 발언이고 그 심각성은 절대 가볍지 않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

#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개최

### 17~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30~10월19일 국정감사 실시

국회는 2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의장 주재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했다.

문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현재 국회는 여야의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는 매우 어려운 정국”이라며 “그렇더라도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앞으로는 잘될 것이라는 희망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또 문 의장은 “청와대는 청와대다워야 하고, 여당은 여당다워야 하며, 야당은 야당다워야 한다”며 “청와대와 여야, 국회가 그 본분을 다하

며 국민통합으로 나아가야 할 때 비로소 ‘나라다운 나라’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선 이날 오전 문 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17~19일 3일 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고, 23~26일 4일간 정치분야, 외교·통일·안보분야, 경제분야, 교육·사회·문화분야 순으로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어 30일부터 10월19일까지는 정기국회 하이라이트인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또한 여야는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시정연설을 다음달 22일 개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 가족을 위한 알뜰 정보

# SMART LIFE

## 사랑방

사랑방닷컴

사랑방잡

사랑방부동산

사랑방카

사랑방원룸

사랑방장터

사랑방나주혁신도시

사랑방맛집

사랑방버스